

國文小說의 發達過程 研究

蘇 在 英*

- | | |
|-------------------|-----------------|
| I. 머리말 | VI. 樂善齋小說・家門小說 |
| II. 形成期の 國文小說 | VII. 판소리계 소설 |
| III. 國文小說의 發達과 讀者 | VIII. 衰頹期の 國文小說 |
| IV. 家庭小說의 발달 | IX. 맺음말 |
| V. 英雄小說의 성행 | |

I. 머리말

이 글은 필자가 이미 연구한 漢文小說의 系統論과 연결지어지는 계속적 작업의 하나다.¹⁾ 우리 소설의 원초적 표현 문자는 물론 漢字였다. 高麗 假傳에서 이어지는 金時習의 金鰲新話가 그 證例다. 그러나 訓民正音が 創製된 이후로는 우선 일차적으로 각종 佛經・儒書・文學書들의 번역사업과 더불어, 국문을 표현 媒體로 하는 새로운 소설이 탄생되었다. 許筠의 洪吉童傳이 하나의 이포크가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소설 形成期の 번역체 작품들이 일단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朝鮮朝 中期까지만 하더라도 儒家들은 소설에 대하여 매우 否定的 態度를 취하고 있음을 여러 文獻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소설의 유입과 더불어 차츰 小說이 社會意識을 대변하는 역할을 떠맡으면서 주로 婦女子・民衆層을 독자로 하여 國文小說의 盛行을 가져온다. 바로 이러한 독자층의 擴散과 더불어 소설에 대한 肯定的 思考가 차츰 싹트게 된다. 西浦小說이 胚胎된 肅宗朝까지만 해도 아직 국문소설의 地盤은 허약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후 英正朝에 이르면 이른바 實學思想의 물결을 따라 바야흐로 國文小說의 全盛期를 맞는다.

該稿에서 집중적으로 檢討의 대상이 되어져야 할 소설의 장르로는 家庭小說 英雄小說類를 비롯하여 樂善齋小說・家門小說 그리고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소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가운데에도 英雄小說의 등장은 오랜 戰亂의 결과가 낳은 긴장된 時代意識의 산물이고, 樂善齋小說은 特殊階層의 소설 享樂과 관련되며 판소리 소설은 社會를 바라보는 作者나 讀者의 相關的 態度와 관련된다. 이들 작품에 대한 年代 推定作業과 더불어 集中的 分析 檢討를 加하려 한다.

끝으로 開化期の 新小說과 연결되는 古代小說의 衰頹期 作品들을 살펴봄으로써 時代的 斷

*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1) 拙稿 朝鮮朝 漢文小說의 系譜研究 (崇田大論文集 11집) 1981

絶에 대응하는 小説意識의 連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形成期の 國文小説

국문소설의 형성은 漢文小説의 번역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전의 口碑傳承과도 관련을 가지고 나타난다. 世宗에 의해 한글이 창제되고 世祖代의 刊經都監을 중심한 각종 佛書·儒書·文學書의 諺解事業을 중심으로 발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불서 가운데 楞嚴經諺解 妙法蓮花經諺解 禪宗永嘉集諺解 般若波羅蜜多心經諺解 佛說阿彌陀經諺解 등이 나오고, 유서 가운데에서도 四書를 비롯하여 仁粹大妃의 內訓 三綱行實圖 七書 小學 등의 잇달은 번역이 있게 되며, 문학서로는 明皇誠鑑 分類杜工部詩 聯珠詩格 黃山谷詩集 百聯抄解 등이 잇달아 번역되어 나와 文化界의 一大革新 선풍이 일게 된다. 특히 佛敎의 信佛思想을 담은 佛經諺解는 民衆 내지 婦女層과의 신뢰감을 두텁게 하여 불경 속에 삽입된 단편적 작품들의 번역을 통하여 독자층을 제한된 숫자나마 확보하게 되고 信佛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널리 읽히기에 이르니, 安樂國太子傳 目連傳 善友太子傳 金牛太子傳 王郎返魂傳 등의 작품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한국 최초의 散文集인 釋譜詳節에 뿌리박은 이 작품은 명실 공히 韓國 최초의 소설다운 소설의 하나라고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다. 종래 學界는 洪吉童傳을 古代小説의 첫 출발적 작품으로 共認함으로써 國文小説이 형성될 수 있었던 世宗代로부터 洪吉童傳이 형성되었다는 光海朝 사이에 15·6世紀에 걸쳐 170年間이라는 空白期間을 스스로 設定해온 셈이다. 그러나 安樂國太子傳이 한국 최초의 소설로서 15세기에 자리잡고 있는 이상 이 空白期間은 그대로 인정될 수가 없다.²⁾

여기서 보면 흥길동전 이전에 安樂國太子傳을 최초의 국문소설로 내세우고 있다. 釋譜詳節의 일부로 撰譯된 安樂國太子傳은 결국 현실의 富貴榮華를 버리고 선심과 자비로 無上道를 구하면 생사고해를 넘어서 極樂淨土 安樂國에 이르게 된다는 불교적 인생 역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일반적 고대소설의 결구와 일치하는 소설적 격식은 갖추고 있으나 原作이 佛典으로 信佛布敎를 위한 작품이며 불경이 민간에 널리 유포된 후 내용 등 일부가 소설화하였을 것이므로 불경언해 자체를 소설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³⁾

安樂國이 大王과 相逢하고 母夫人과 함께 極樂世界를 왕생하는 안락국대자전은, 寶珠의 경험을 통하여 부모의 눈을 뜨게 하고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善友太子傳과 함께 <英雄의 一代記>를 다룬 고대소설의 傳奇的 類型에 부합하는 설화다. 金牛太子傳에 있어서도 그 구성은 방사하다. 波利國의 金牛太子는 암소에게 먹혀 금송아지로 태어나고 고구려 공주와 인연을 맺고 金輪國王이 되어 눈먼 普滿夫人을 구출하여 극락에 仙化한다. 여기서 보면 상술한

2) 史在東 安樂國太子傳研究(語文研究 5집) 1967 p.122

3) 曹喜雄 國文本古典小説 形成年代考究(國民大論文集 12집) 1978 p.27 참고

불경 속의 단편들이 信佛을 목적으로 번역되어 민중 속으로 침투되었다가 그것이 일정한 변용기를 거치면서 典型的의 국문소설로 완성을 보이기에 이르렀으니, 安樂國太子傳→안락국전, 善友太子傳→적성의전, 金牛太子傳→금송아지전에 이르는 후대적 異本으로 固着된다.⁴⁾

王郎返魂傳도 위의 세 작품과 같은 변천 경로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黃溟江교수는 번역체 국문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王郎返魂傳을 들고, 이는 당초 普雨(1515?~1565)가 한문으로 짓고 동시에 국문으로 옮긴, 문학적 동기에 앞서 布教方便으로 念佛行을 고취한 불교소설이라고 못박고 있다.⁵⁾ 勸念要錄에 수록된 이 작품의 根源說話를 天台山人은 佛說阿彌陀經 湛然的 魚兒四幕劇 太平廣記의 費子玉 王璫에서 끌어오려 하였고,⁶⁾ 金鉉龍교수는 太平廣記의 田先生이야기를,⁷⁾ 史在東교수는 淨土三部經을 근원으로 지목하고 있다.⁸⁾ 佛道를 배척하던 王郎이 10년 전에 죽은 아내 宋氏가 꿈에 나타나 지시하는대로 불법을 돈독히 믿은 덕분에 염라대왕에게 잡혀갔으나 화를 면하고 송씨마저 환생하여 부부 인연을 계속하다가 죽어 극락세계로 환생했다는 줄거리는 불도에 귀의할 것을 권유한 내용이며 寺刹에서 일반 신도들에게 불교 교리를 선전하기 위해 勸念要錄에 수록되었다가 대중화를 위해 번역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⁹⁾ 왕랑반혼전은 초기 발생의 국문소설이 한문을 발판으로 삼고 시작된 사실을 보이는 하나의 증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아직도 學界 일각에서는 勸念要錄의 성격을 들어 작자나 작품에 대한 회의가 있을 뿐더러 普雨의 번역설도 전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 작품 역시 전기 安樂國太子傳처럼 신불 목적을 위한 단편적 번역이어서 소설의 온전한 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흠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를 온전한 普雨의 국문작품으로 받아들일 경우, 현존 국문소설로는 最古의 작품이 되며, 전대의 金鰲新話와 林悌를 거쳐 許筠의 洪吉童傳을 잇는 소중한 작품이 될 뿐더러, 흥길동전을 훨씬 앞지른다는 점에서 소설사의 변혁을 가져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許筠의 洪吉童傳은 흔히 국문소설의 효시적 작품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澤堂의 〈筠又作洪吉同傳以擬水傳〉¹⁰⁾이나 沈粹의 〈筠作洪傳 以擬水滸〉¹¹⁾라고 한 기록에 의거한다. 조희웅교수는 澤堂集의 〈洪吉同〉이란 기술로 미루어 보아 이는 아마도 현존 洪吉童傳과는 다른 洪吉同이란 실제적 인물의 전기가 아닐까 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 근거로 허균의 惺所覆瓿藁에는 嚴處士傳 蓀谷山人傳과 같은 한문으로 된 傳記的 작품이 현전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¹²⁾ 그리고 許筠이 흥길동전을 국문으로 지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 국문으로 지

4) 史在東 佛敎系 國文小說의 形成過程研究(亞細亞文化社) 1977 p. 145

5) 黃溟江 王郎返魂傳(朝鮮王朝小說研究) p. 60. 史在東의 「王郎返魂傳의 몇가지 문제」(韓國言語文學 13집)에서는 華嚴寺本(1637) 桐華寺本(1753) 海印寺本(1776) 禪雲寺本(1787) 興律寺本(1795)의 순으로 판각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6) 金台俊 朝鮮小說史(學藝社) 1933 p. 43

7) 金鉉龍 王郎返魂傳 형성에 관한 고찰(국어국문학 51호) 1971

8) 史在東 前掲書 p. 63

9) 黃溟江 懶庵 普雨와 王郎返魂傳(국어국문학 42·43호)

10) 李植 澤堂集 別集 雜著散錄

11) 沈粹 松泉筆譚

었다면 당시의 관례로 미루어 반드시 諺譯傳奇니 諺課稗說이니 諺書古談이니 하는 따위의 但書가 붙음직하다. 그러므로 澤堂集에서 이야기하는 洪吉同傳은 실존인물 洪吉同의 전기일 것이며, 그것도 국문이 아닌 漢文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다만 19세기 경에 들어와 口傳을 바탕으로 현전 국문 洪吉童傳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라고 추단할 수 있다. 홍길동전의 형성과 관련하여 모델이 될만한 사건으로는 燕山君 때의 大賊 洪吉同 이외에도 明宗 때 林巨正을 비롯하여 徐羊甲을 위시한 七庶之獄사건 또는 李夢鶴의 반란 등을 들 수가 있다.¹³⁾ 이 작품은 조선 왕조사회의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계기함과 아울러 사회집권층의 부조리를 응징하고 있어 社會批判的 次元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趙東一교수는 홍길동전을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의 전형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그 話素 단락을 설명하고 있다.

- 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 나. 비정상적으로 잉태되었거나 출생했다.
- 다. 범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다.
- 라. 어려서 버려져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마. 구출·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 바.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 사.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¹⁴⁾

이러한 <영웅의 일생>을 金烈圭교수의 傳記的 類型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

- ① 靑龍의 胎夢 끝에 侍婢의 아들로 탄생했다.
- ② 집안에서 迫害와 困辱을 겪는다.
- ③ 집을 버리고 떠난다.
- ④ 活貧黨 괴수로 여러 神異를 보인다.
- ⑤ 兵曹判書가 된다.
- ⑥ 碑島王國을 건설한다.
- ⑦ 妖怪窟에서 惡魔를 퇴치한다.
- ⑧ 그 악마에 被拉된 소녀로 아내를 삼는다.¹⁵⁾

12) 曹喜雄 前掲論文 p.28 참조.

13) 金東旭 洪吉童傳의 國內的 遡源(李崇寧박사頌壽記念論叢) 1968 참고.

14) 趙東一 英雄小說 作品構造의 時代의 性格(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15) 金烈圭 民譚과 李朝小說의 傳記的 類型(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여기서 보면 許筠이 水滸誌를 단순히 모방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후반부에 보이는 怪物退治며 白龍의 딸과 吉童의 結緣部는 민담인 地下國大賊除治說話에 근거하고 있어, 오히려 민담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작품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홍길동전은 단순한 인물의 전기적 성격을 넘어서 傳承說話가 모태가 되어 훨씬 후대에 와서야 국문으로 작품화하게 되었으리라는 추단이 상당한 확신을 갖게 한다.

홍길동전은 많은 필사본이 전하나 문자상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주는 이본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판본으로는 京板 翰南本이 가장 오래고 京板 魚靑橋本 完板本 安城本은 경관 한남본의 후대적 이본들이라 믿어진다.

조동일교수는 英雄小說의 模索期 작품으로 금방울전 楊豊傳 淑香傳 蘇大成傳 九雲夢을 들고, 전형적 영웅소설의 확립기 작품으로 趙雄傳 劉忠烈傳 玄壽文傳 黃雲傳 李大鳳傳 등을, 解體期의 작품으로 張豊雲傳 張景傳 등을 들고, 제1기 작품이 대부분 17세기 중기쯤에 창작된 것으로 보고 그 근거가 되는 문헌으로 崔文獻傳과 古本 淑香傳을 들고 있다.¹⁶⁾

崔文獻傳은 金集(1574~1656)의 手澤本으로 내용이 지하 요괴가 여자를 납치한 삽화는 금방울전과 일치하고 중원 천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국제적 질서에 반역하고 있는 점에서는 홍길동전의 체제 부정적 성격과 상통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이전으로 작품 연대가 소급 추정되며,¹⁷⁾ 古本 淑香傳은 日本九州의 鹿兒縣 苗代川村의 沈壽官家에 家傳되어 오던 것으로, 심씨의 선조가 壬亂時 일인들에게 피납되어 갔을 때 가지고 갔던 작품이라 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音韻學的 分析을 통해 16세기 말 내지 17세기 초로 창작 연대를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다.¹⁸⁾

Ⅲ. 國文小說의 發達과 讀者

朝鮮朝의 儒家들은 소설에 대하여 매우 否定的 생각을 갖고 있었다. 中宗朝에는 蔡壽라는 사람이 薛公贊傳을 지었는데 이는 매우 요망한 내용으로 혹자는 이를 한자로 베끼고 한글로 번역 전파하여 민중을 현혹하였으므로 구금되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¹⁹⁾ 이처럼 소설에 대한 부정적 기록들은 오히려 소설의 발달을 반증하는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독자들은 부녀자들이나 평민이 중심이 되었고, 그후 직업적 講談師나 傳奇叟에 의해 낭독되던 소설이 貫冊의 과정을 거치고 坊刻本의 刊行과 더불어 소설의 발달이 더욱 촉진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먼저 文獻說話 가운데서 본격적인 국문소설의 언급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趙秀三의 秋齋

16) 趙東一 前掲書 p.444.

17) 鄭炳昱 崔文獻傳 紹介(國文學叢書) 新丘文化社 1960.

18) 李渭應 九州 苗代川에서 발견된 壬亂遺民 沈氏家 世傳本 淑香傳研究(釜山大開校二十週年論文集) 1966.

19) 中宗實錄 中宗 6年 9月 己酉條.

集에서 보면 淑香傳 蘇大成傳 沈淸傳 薛仁貴傳 등의 작품(諺課稗說)을 구송하는 기록이 보인다. 口誦者를 傳奇叟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자면 소설 읽기를 직업으로 삼은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매달마다 第一橋 第二橋 梨峴 校洞口 大寺洞口 鍾樓前 등을 오르내리며 못사람들(독자)에게 둘러싸여 유창한 음성으로 상기 작품을 읽어 내려가는데 <至最喫緊可聽之句節 忽默而無聲 人慾聽其下回 爭以錢投之>에서 보면 독자의 소설을 읽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인기를 얻고 돈까지 벌어들이는 일종의 商行爲(遊錢法)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성까지 엿볼 수 있다.²⁰⁾ 秋齋集의 저자인 趙秀三의 생몰연대는 英朝 38(1762)에서 憲宗 15(1849)으로 알려져 있으니 적어도 이미 淑香傳 蘇大成傳 沈淸傳 薛仁貴傳이 일반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거의 같은 무렵인 正祖 18년(1794) 對馬島 역관 小田幾五郎이 朝鮮使臣에게 들은 바를 기술한 象胥記聞이라는 책에는 張豐雲傳 九雲夢 崔賢傳 蘇大成傳 張朴傳 林將軍忠烈傳 蘇雲傳 崔忠傳 泗(謝)氏傳 淑香傳 玉橋(梨)傳 李白慶傳 三國誌 등이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¹⁾ 위의 秋齋集과 象胥記聞에서 보면 蘇大成傳이나 淑香傳같은 작품은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薛仁貴傳 泗氏傳 玉橋梨 三國誌 등 중국의 작품들도 우리 소설과 함께 번역되어 독서계에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 소설의 대표격인 春香傳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이 晚華齋 柳振漢의 아들 槠의 家庭見聞錄에 의해 밝혀진 작품의 成立年代가 英祖 30年(1754)으로 훨씬 소급됨에도 불구하고 그무렵까지 流動狀態에 있었음을 말해주며, 淑香傳은 晚華本 春香歌 가운데 이미 <二仙謠池淑香是>라 하여 二仙(李仙)과 淑香의 로맨스가 인용된 것으로 보아 그 형성 연대가 春香傳보다는 훨씬 앞섬을 알 수 있다. 또 古小說 쇠퇴기의 작품으로 알려진 襄裨將傳도 <濟州將留襄將齒>에서 이미 배비장과 愛娘의 拔齒說話가 引用되고 있어 그 근원이 매우 오래임을 보여주고 있다.

紫霞 申緯(1769~1847)의 警修堂集에 실린 글(李樵夫序)에서는, 이웃집에 사는 나뭇꾼(樵夫)이 낮에는 산에 가 나무를 하고 밤에는 술불을 켜고 傳奇를 읽는 것으로 樂을 삼는다고 하여,²²⁾ 이미 국문 소설이 庶民生活 깊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肅宗朝 朴斗世(1650~?)의 수필 要路院夜話記에는

우리 금곡 중의도 김호수는 언문을 잘하여 결복을 마련하며 고담을 박람하기로 호수를 하연지 십여 년에 가게 부요하고 성명이 혁혁하니 사나회 비록 진서를 못하나 언문이나 잘하면 족히 일존중 횡행할 터이라.²³⁾

라 하여 忠淸道 金谷에서 金戶首가 고담을 잘하여 結卜을 마련하여 가게가 부요하게 되고 名

20) 趙秀三 秋齋集 卷7 紀異 傳奇叟條

21) 天理大圖書館藏 今西龍本(필사본)은 對馬島 역관 小田幾五郎이 朝鮮使臣에게서 들은 바를 기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大谷森繁 한글소설 發展史의 特色(崇田語文學 6집) 1976.

22) 余所居 隔簾丈餘 有李姓樵夫者 晝入山採樵 夜輒燃松明 讀傳奇以爲樂(李樵夫序).

23) 李秉岐選解 要路院夜話記(乙酉文化社) 1958.

聲을 얻게 되었다는 글을 통하여 볼 때, 숙종대에는 이미 都市뿐만 아니라 農村에서까지 국문으로 된 古談(小說)이 유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李德懋(1741~1793)의 銀愛傳에는 鍾街의 어느 煙肆에서 稗史를 읽던 사람이 청중에게 피살되는 사건의 전말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기한 獄事의 내막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영웅이 극도로 실의에 빠진 대목에 이르러 눈을 부릅뜨고 입거품을 내뿜더니 담배 썬는 칼을 들어……>에서 보는 것처럼 軍談・英雄小說에 매료된 讀者의 흥분과 감동적 반응에서라고 보아진다.²⁴⁾

이덕무의 士小節에서 보면

諺齣傳奇 不可耽看 廢置家務 怠棄女工 至於與錢而賞之 耽惑不已 傾家產者有之

라 하여 諺齣傳奇 즉 소설을 탐독하느라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소설을 빌어다 보느라고 셋돈을 내고 家産까지 기울인 자가 있었다고 하였다. 蔡濟恭(1720~1799)이 그의 정경부인 吳氏가 번역한 女四書 머릿글 가운데 <惟稗說 是崇日加月增 千百其種…婦女無識見 或賣釵釧 或求債銅 爭相貫來 以消永日>에서도 패설이 날로 늘어 천여종에 이르고 부녀들이 비녀나 팔찌를 팔기도 하고 빚을 내어 다투어 빌려가 낚날의 소일거리로 삼았음을 말하고 있다.²⁵⁾ 士小節의 <作奸誨淫 不可接目>이니 雅亭遺稿의 <誨淫誨盜 壞倫敗化>의, 소설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은 그만큼 婦女社會에서 국문소설의 유행이 일반화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큼을 말해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영조조 李學遠의 洛下生藥 기사 가운데서도 <今世綺婦女家 酷好諺齣小說 焚膏繼晷 潛心暗讀>이라 하여 부녀자들이 諺齣(중국소설의 번안)을 즐겨 읽었던 당시 풍습의 일단을 말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문소설문학의 성립을 허균의 洪吉童傳으로 흔히 잡고 있으나 널리 독자에게 일반화되기는 肅英朝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작자의 稿本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전전하면서 筆寫되어 주로 庶民層이나 婦女子層을 중심으로 차츰 독자층을 형성해 나갔다. 그러나 창작자나 필사자는 주로 빈한한 兩班 士階級이 아니면 中人胥吏層이었으리라 짐작된다. 金東旭교수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소설의 독자계층 형성이 완만했던 이유로, 한정된 중인계급의 수, 寫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兩班婦女層 등을 들고 있으며²⁶⁾ 가장 원시적 商業生産手段이었던 한글소설 坊刻本의 刊行도 오늘날까지 알려진 소설 六百餘種 가운데 불과 수십종만이 18세기에 이르면서 그나마도 短篇 내지 縮約本 중심으로 刊行되기에 이르고 있다.

李能和의 朝鮮女俗考에 의하면 당시의 애독소설로 沈淸傳 淑香傳 朴氏夫人傳 玉樓夢 九雲

24) 李德懋 雅亭遺稿 卷3 銀愛傳(靑莊館全書).

25) 蔡濟恭 焚岩先生集 卷33 女四書序.

26) 金東旭 坊刻本에 對하여(東方學志 11집) 1970.

夢 倡善感義錄 謝氏南征記 洪吉童傳 薔花紅蓮傳 白鶴扇傳 翟成義傳 劉忠烈傳 諸馬武傳 三國誌 趙雄傳 蘇大成傳 楊豐傳 興夫傳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 독서의 선택은 주로 ① 孝烈忠義 ② 家庭及社會 ③ 貪官汚吏 惡行罵倒 ④ 英雄豪傑 快事賞讚의 공리적 덕목에 기준을 두고 있다.²⁷⁾

漢京識略에 의하면 우리나라 書肆의 첫 설립은 1518년(중종 13)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정확한 기록이며 書肆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후 대부분의 서적 매매행위는 冊居間(仲介人)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中人(譯官)들로 서적을 중국에서 수입해와 書院·글방·兩班家를 전전하며 書生과 閨房의 부녀자들에게 開化의 씨를 뿌린 産婆役을 맡았다.²⁸⁾ 貫冊家에는 한글애기책이나 노래책이 주종이었다. 세책가의 특징으로는 부녀가 주로 독자이며 세책대본이 흥미 위주의 소설류이며 책값의 低廉함을 들 수 있다. 1894년경만 하더라도 꾸랑의 韓國書誌에 의하면 부녀자들이 주로 貫冊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영업은 이가 박하나 점잖은 生業으로 인정되어 영락한 양반들이 자진 종사하는 바 되고, 坊刻本 출간을 계기로 국문소설의 급진적 발달을 맞게 된다.²⁹⁾

IV. 家庭小說의 발달

국문소설의 발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가정의 비극적 갈등을 다룬 이른바 家庭小說을 간과할 수 없다. 李元洙는 가정소설을 정의하여, 봉건가족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가족 성원의 이질감에서 야기되는 가족간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소설이라 하고, 이를 애정갈등, 신분갈등, 주도권 갈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³⁰⁾

家庭小說은 그 제재의 현실성으로 하여 독자에게 폭넓은 공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후대의 신소설에 이르도록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또한 당위규범의 합리화라는 권선징악적 의미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대부층의 요구에 부합되어 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먼저 薔花紅蓮傳의 경우를 보자. 天台山人은 일찌기 장화홍련전의 原典이 漢文本이며 작자는 潘南 朴慶壽임을 말하고 저작연대는 1698(숙종 24)에서 1758(영조 34)이며 국문으로 번역되기는 純祖 哲宗 이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¹⁾ 이러한 근거는 全東屹의 嘉齋集 속의 <歲戊寅臘日 古潘南朴慶壽謹書>의 <戊寅>을 추정 한 연대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문이 발표

27) 李能和 女子讀本 諺文小說(朝鮮女俗考).

28) 朴尙均 開化期冊居問攷(韓國學研究 2집) 東大韓國學研究所 1977.

29) 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 文潮社 1948 pp. 22~30

30) 李元洙 家庭小說의 葛藤構造와 그 意味(文學과 言語研究會) 1982.

31) 金台俊 前掲書 p. 182 薔花紅蓮傳과 其他公案類.

되어 學界에 주목을 끌고 있다. 1865년(고종 2) 全東屹의 후손에 의해 편찬된 嘉齋事實錄에는 공의 行狀과 더불어 한문본이 수록되어 있는데 <歲戊寅臘日吉 潘南朴慶壽謹書>로 되어 있으며 行狀에는 全東屹의 下世日字가 1685년(숙종 11·76세)으로 되어 있으며 공의 별세 후 그의 6대 손 萬宅이 6대조의 鐵山府使時 업적을 소설화한 諺冊을 가지고 와서 眞書로 써줄 것을 부탁하기에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였다고 했으니, 薔花紅蓮傳의 原典은 한문본이 아니라 國文本이며, 또 全東屹의 6세손이 되자면 전기 1698(숙종 24)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며 1758(영조 34)이 옳다는 주장이 된다.³²⁾ 국문본에는 한문본에 없는 靑鳥의 안내, 호랑이가 장쇠의 다리와 귀를 베먹는 사건, 결미의 장화자매의 화신이 탄생한다든가의 사건들이 많이 가미되어 국문본의 축약이 나중 한문본이 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내용면에서 보면 孫晉泰는 이러한 冤鬼伸冤說話를 阿娘型說話로 명명하고 靑丘野談의 <雪幽冤夫人識朱旗> 등을 근원설화로 보고 있는데³³⁾ 이는 金仁香傳도 설화상으로는 同軌의 작품으로, 蕙葉志譜의 伸妓冤妖, 攪睡樵史의 冤鬼雪恨 靑丘野譚의 雪神冤完尹檢獄 등 많은 阿娘型 類話와 比較된다.³⁴⁾

趙聖期(拙修公)의 어머니는 古今史籍에 博聞慣識하여 소설 듣기를 좋아하여 이로써 잠을 막고 근심을 풀거리로 삼았으므로, 공이 어머니를 위하여 소설 몇 편을 만들어 드렸으니 세상에 전하는 創善感義錄과 張丞相傳이 그것이라 하였다.³⁵⁾ 또 稗說에 九雲夢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이는 西浦의 지은 바로 세상의 功名과 富貴가 一場春夢에 귀착한다는 것으로 大旨를 삼아 어머니의 근심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라 전한다.³⁶⁾ 또 謙齋 趙泰億(1675~1724)의 어머니는 소설을 매우 즐겨하여 西周演義 見本을 얻어 이를 베껴 두고는 무척 기뻐하였다고 하였다.³⁷⁾

여기 拙修公의 어머니나 西浦의 어머니나 謙齋의 어머니는 모두 小說을 좋아했다는 共通點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부녀자들이며 지적 수준으로 보아 상류층임도 공통적이다.

創善感義錄은 倡善感義錄 創善感義錄 花珍傳 花門忠孝錄 花荆玉傳 등 여러 異稱이 있으며, 작자로는 金道洙, 鄭浚東說도 있으나 松南雜識의 기록대로 趙聖期(1638~1689)가 확실한 듯하다. 이 작품은 14회로 된 回章小說로 回題도 한문본 회제의 음역에 불과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국역의 흔적이 역연하여 金起東, 文璣奎교수의 주장처럼 原作이 한문일 공산은 크나, 姜銓燮 교수는 자신의 소장본 花珍傳(花荆玉傳)이 원래 한글본인데 그후 한문으로 개작 유포되었다가 다시 국문으로 번역된 것이라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³⁸⁾ 이 논지의 뒷받침으로 北

32) 全聖鐸 薔花紅蓮傳의 一研究(국어교육, 13호)1967. 金起東교수는 戊寅을 1818(순조 18)로 보고 있다. (韓國古典小說研究)

33)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乙酉文化社) p. 46.

34) 曹喜雄 小說과 說話(朝鮮後期文獻說話의 研究) 1980 p. 123.

35) 趙在三 松南雜識.

36) 李稗 三官記 上(稗林) 俗說에는 西浦 金萬重이 中國使行에서 소설을 구입해 오라는 어머니의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스스로가 이를 창작하였다고도 한다. 大谷森繁 語錄解에 對하여(朝鮮學報 99~100집) 참고.

37) 趙泰億 謙齋集 諺書 西周演義 跋.

38) 姜銓燮 花珍傳에 대하여(韓國言語文學 13집) 1975 p. 115

軒 金春澤(1670~1717)의 증언과 같이 南征記 九雲夢도 원래 국문본인데 한역 후 독자의 요망에 따라 거듭 국역되어 유전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강전섭본 권두에 <여염간 은서고설이 만행되 그중 화진전이라 하는 칙이...>라 한 대문과 翰南本 권두에 <讀閭巷間 諺書小說而聽之하니 其中에 有冤感錄者라>한 것을 보면 諺書小說 冤感錄(花珍傳)을 한역하였음을 역자는 증언하고 있고, 원감록의 한역본을 다시 창선감의록이라 題僉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악한 嫡母와 悖倫한 兄과 妖妾이 빚어내는 한 가정의 기복을 그려낸 이 작품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 등 유교적 도덕을 강조하고 있어 사대부 가정 부녀자의 즐겨 읽는 읽을거리가 되었을 것이나, 車溶柱교수의 고증처럼 국문본은 누락이 많고 意譯 또는 音譯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원본 표기가 국문이었다는 설은 異本의 정밀한 검토와 아울러 再考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³⁹⁾

九雲夢은 三官記의 기록처럼 母夫人의 근심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작품인데 天台山人 이래 원작이 國文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근래 丁奎福교수에 의해 漢文本原作說로 고착되기에 이르렀다.⁴⁰⁾ 黃溟江교수도 現傳하는 國文本은 아마도 漢文本을 모본으로 삼고 번역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여 번역체 국문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⁴¹⁾ 乙巳本(1725·영조 1)의 모본이 되는 老尊本(1725 이전)은 西浦와의 연대 간격을 바삭 좁혀 漢文本原作說을 설득력 있게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南征記에 대하여서는 저작의 목적을 張嬪에 교혹된 肅宗을 悔悟시키고자 함이라고 하고,⁴²⁾ 北軒集에는 西浦가 俗言(국문)으로 소설을 頗多하게 지었는데 그 가운데 南征記는 등한히 건줄 바가 아니어서 이른바 <敦民彝稗世教> 하는 倫理意識에서 이를 일부러 北軒이 한문으로 번역한다고 밝히고 있다.⁴³⁾ 숙종이 장희빈으로 말미암아 仁顯王后를 버린 것은 이 작품에서 劉翰林이 첩 喬氏 때문에 謝氏를 버린 것과 相通하므로 숙종이 소설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가치요 목적이라 해석된다. 一樂亭記에 의하면

世之謂小說者 語皆鄙俚 事亦荒誕 盡歸於奇談詭譎 而其中所謂 南征記 感義錄數篇 令人說去 便有感發底意矣

라 하여 소설에 대한 士大夫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작자 晚窩翁은 소설이라는 것은 文章이 鄙俚하고 사건이 荒誕하여 모두 奇談이나 詭譎에 돌릴 수 있다고 하고 그 가운데 南征記와 感義錄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勸善懲惡하는 마음을 감발케 하는 底意가 있다고 하고, 자신도 이러한 소설을 모방하여 一樂亭記를 짓는다고 하였다.⁴⁴⁾ 여기서 보면 南征記 彰善感義

39) 車溶柱 彰善感義錄解題(螢雪出版社) 1978 참고.

40) 丁奎福 九雲夢研究(高麗大出版部) 1974. 「原作에 對하여」 p. 213.

41) 黃溟江 朝鮮王朝小說研究(韓國研究院) 1978 p. 61.

4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藁 小說辨證說.

43) 金春澤 北軒集 卷16 囚海錄.

44) 張孝鉉은 「朝鮮後期の 小說論」에서 晚窩 李頤淳(1754~1832)으로 추정하고 필사간지인 <己巳年>을 1809(순조9)로

錄 一樂亭記는 같은 성격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⁴⁵⁾ 南征記를 五洲衍文의 기록대로 <欲悟聖心而製者>로 볼 때, 장희빈은 숙종 12년에 숙빈이 되고 16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얼마 후 폐출되고 20년에 仁顯王后가 복위되었으니 南征記는 숙종 12년에서 西浦 沒年인 18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이며, 남정기가 감의록의 영향을 받았으면 모르거니와 그 반대라면 感義錄은 숙종 12년에서 趙聖期の 물년인 숙종 15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되며, 一樂亭記의 <巳巳冬>은 역시 숙종 15년 己巳가 되어버려 세 작품의 연대마저 거의 같은 時期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밖에 국문본 가정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공취팔취 鄭乙善傳(鄭明錄) 金仁香傳 黃月仙傳 楊風雲傳 魚龍傳 鄭進士傳 柳丞相傳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가정을 무대로 유교적 가족주의와 가족내지 부부간의 갈등이 빚어내는 비극을 구성의 특질로 하고 있으며 가정내에서 빚어지는 사건을 官家에 고하여 해결하는 장화홍련전같은 公案類도 상당수에 이른다. 특히 楊風雲傳같은 작품은 京板·完板·安城板뿐 아니라 活字本·筆寫本이 다양하게 남아 있어 독자층이 두터운 작품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V. 英雄小說의 성행

英雄의 일생을 형상화한 許筠의 洪吉童傳은, 壬辰倭亂 丙子胡亂의 양란을 거치면서 점차 民衆에 의해 民族的 英雄을 갈망하는 현상으로 변모되어, 실제 전란과 관련을 갖는 역사적 영웅을 갈망하는 현상과 가공적 영웅을 창조해 내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전자를 흔히 歷史軍談, 후자를 創作軍談이라고도 일컫는다. 역사군담은 역사소설이라고도 일컫는 바 壬辰錄 朴氏傳 林慶業傳등이 대표적 작품이며, 창작군담 즉 軍談小說로는 趙雄傳 劉忠烈傳 蘇大成傳 李大鳳傳 玄壽文傳등 40여 작품을 손꼽을 수 있다.

壬辰錄은 소설이라기보다 사실과 설화의 집성체라고나 할까, 임란의 체험자나 전승자들에 의해 응어리진 일종의 積層文學의 성격을 지닌다. 처음은 懲忿錄 隱峯의 壬辰錄 閱順之의 壬辰錄 등 역사적 기록이 바탕이 되었으나 여기에 傳承說話와 민중의 忿怒가 덧붙여 小說化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일찌기 坊刻本 연대를 경관은 <甲午仲秋 武橋新刊>에서 甲午年을 1894년(高宗 31)으로, 완판은 <歲辛亥孟夏 完南開板>에서 辛亥年을 경관보다 앞선 1851년(哲宗 2)으로 추정할 바 있으며 崇田大本(필사본)등이 경관의 모본이 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여편의 壬辰錄 異本들을 서지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①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作品群 ② 역사성에다 意圖的 설화를 가미한 作品群 ③ 說話가 바탕이 된 國文本 作品群 ④ 說話를 바탕으로 한 漢文本 作品群 ⑤ 意圖的 說話들을 拔萃 편집한 作品群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참고 있다.

45) 金東旭 李朝小說의 作者와 讀者에 對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p. 43.

역사적 사실이 바탕이 된 임진록의 경우 여러 史實・野史의 단편들로 편집된 한문본이 근원임은 인정되나, 架空의 설화와 民衆意識이 집성된 작품임을 보나 作者나 讀者意識을 감안할 때 국문을 통해 일반화된 것은 사실이다. 李明善本 高大本같은 한문본이 있으나 慶北大本등 같은 內容의 부연된 국문본이 있음을 볼 때 국문본이 다시 축약・한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泗溟堂의 降倭, 李如松의 援兵, 姜弘立 金應瑞의 倭國征伐, 關雲將의 陰助, 崔日景의 解夢, 桂月香과 金應瑞의 倭將殺害, 金德齡의 清正陣 출입, 宣祖의 蒙塵, 李舜臣의 죽음설화등 40여 話素의 共通分母들을 어울려 안으로는 民族的 自省과 밖으로는 外敵에 대한 忿怒를, 敗北로 위축된 民衆의 覺醒劑로 꽃피우고 있다.⁴⁶⁾

朴氏傳과 林慶業傳은 丙子胡亂 후의 民族的 忿怒를 수용한 작품이다. 박씨전 말미에 <이 책의 미진한 말은 임경업전의 가서 보라> 또는 <세 죽던군과 조선인물을 본국으로 다녀온 사적은 임경업전의 잇기로 이만 국치노라>라고 한 데서 보면 양 작품의 선후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朴氏傳의 박씨가 架空의 인물임에 비해 林慶業은 실제적 인물인 만큼 후자에 비해 전자는 허구성이 매우 높다. 박씨전은 병판 李時白의 처 박씨가 요술과 슬기로써 전란을 수습하는 내용으로, 胡亂에 대한 쓰라린 체험에서 청에 대한 복수심을 박씨의 초인적 힘에 의지하여 정신적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에서 창작되어 부녀 중심의 서민사회에서 널리 애독되었다. 林慶業傳은 임경업의 실기가 原型이다. 尤庵의 宋子大典에는 이미 林將軍慶業傳이란 傳記가 있으며 正祖命撰인 林忠愍公實記 朝鮮歷代名將傳 國朝人物志에 나오는 임장군의 실전은 거의 내용이 일치하나, 국문본 林慶業傳(임장군전)은 아마도 박씨전 이후의 허구성을 가미하고 있어 작자의식은 물론 독자층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작품화하고 있다.⁴⁷⁾

한편 창작군담의 대표적 작품에는 趙雄傳 蘇大成傳 劉忠烈傳 張國鎮傳 李大鳳傳 玄壽文傳 申遺腹傳 李允九傳 李泰景傳등이 있다. 조동일교수는 금방울전 蘇大成傳 楊豐傳등이 가장 먼저 형성된 국문소설로 보고 金集의 崔文獻傳 기록을 들어 이를 금방울전 홍길동전 화소와 견주어 초기 군담의 작품 형성을 이미 17세기 중엽으로 잡은 바 있다.⁴⁸⁾ 이미 象晉記聞(1794)에 나열된 崔忠傳의 이본으로 閔泳大교수는 蘇我氏本(히브리大本)등 10여종의 異本들을 比較 分析하여 한글본은 역사적 사실이 보다 민간설화들을 확대 수용하여 한문본과는 별도로 전승되어 왔으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⁹⁾ 이러한 模索期를 지나 英雄小說이 일반화한 시기는 17세기 말이나 18세기초로 잡고 있는데, 이는 孝宗代 宋時烈的 己丑封事 이후 北伐論이 공식으로 확립되어 중세적 질서가 위기에 봉착하고 이들 의식이 작품 속에 수렴되며 직업적 낭독자 貫册房 坊刻本의 출현으로 소설의 대량 창작과 보급이 이루어진 추세를 배경으로 설명

46) 拙稿 壬辰錄研究(壬丙兩亂과 文學意識) 韓國研究院 1980.

47) 徐大錫 軍談小說의 出現動因反省(古典文學研究 1집) 1971.

48) 註) 16 參照.

49) 閔泳大 崔忠傳異本研究(韓南語文學 7・8輯) 1982.

할 수 있다.⁵⁰⁾ 김동욱교수는 국문소설 방각본은 1848년(憲宗 14)의 三說記・趙雄傳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柳鐸一교수는 완판본의 확실한 출발을 1875년(哲宗 8)의 趙雄傳・洪吉童傳을 들고 있으니 필사본이 방각되어 상업적으로 독자층을 확보한 시기는 1850년 무렵부터라 할 수 있다.⁵¹⁾ 당시 방각본의 주종이 영웅소설이었으므로 방각본의 한계가 곧 영웅소설의 한계라 볼 수 있다. 소설의 작자는 일단 자기자신과 같은 소설의 주인공을 설정한다는 각도에서 보면, 주인공이 간신의 모해를 입어 일단 몰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조양식으로 볼 때 작자가 곧 몰락한 양반계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²⁾ 당쟁의 패배로 몰락한 계층으로는 정상적 방법으로 신분의 상승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외적을 기적으로 물리쳐 자신의 상승을 도모할 뿐아니라 국가도 구하게 되는 허구를 택했다는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작품의 구조와 작자의 현실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틀에 넣어 재단하려는 思考에는 반드시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다만 군담이 貫冊의 주종을 이루고 이는 몰락한 양반에게 접점은 生業으로 인정되어 이에 종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재능을 독자의 취향에 따라 유사한 군담 창작에 눈을 돌리게 되고 상업화를 위하여 坊刻의 형태를 빌어 이윤을 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순환의 原理가 곧 군담소설의 성행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웅소설의 작자가 밝혀지지 않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작자의 신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작자는 차츰 독자나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반신분도 中人 이하의 천민들과 타협하게 되면서 작자층도 일반화하고 독자층도 차츰 두텁게 다져나가 영웅소설류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쇠퇴하게 되지만 방각본에 의한 대량생산에 힘입어 20세기 초까지도 애독되고 그후 신소설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여기서 玉樓夢도 성격상 군담소설이므로 잠깐 言及해야 할 것 같다. 玉樓夢보다 玉蓮夢이 앞서며 작자가 南永魯임은 이미 學界의 일반적 견해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 표기문자가 원래 漢文이나 國文이나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成賢慶교수는 국문본 玉蓮夢→국문본 玉樓夢→漢文懸吐本 說을 내세워 과거의 통설이던 한문본 王樓夢 先行說을 부인한 바 있다. 그 이유로 현토본 挿入歌謠의 대부분이 국문시가의 번역이라는 점과 <諺文刊行만 有하고 漢文譯이 無한> 이란 廣告文案을 제시하고 있다.⁵³⁾ 그러나 그후 車溶柱교수는 懸吐本의 존재 자체가 한문본이 있었다는 증좌이며 그것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옥루몽이 長篇大河物로서 저작연대가 新活字本이 처음 등장한 시기에서 70년정도 밖에 되지 않고, 한문본은 국문본과 달리 필사가 어렵고 유행지역이 좁았을 것임을 들어 재래의 漢文本原作說을 재주장하고 있어

50) 徐大錫 成賢慶은 군담소설이 薛仁貴傳의 영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軍談小說의 成立時期를 18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李朝驪案小說攷(徐大錫) 劉忠烈傳檢討(成賢慶)

51) 柳鐸一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學文社) 1981 참고.

52) 徐大錫 軍談小說의 構成과 作者意識(啓明論叢 7) 啓明大 1971.

53) 成賢慶 玉樓夢의 國・漢本先後問題(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嶺南大出版部 1981. pp. 199~202

앞으로도 계속 論難의 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⁵⁴⁾

Ⅵ. 樂善齋小說・家門小說

樂善齋小說이 學界에 알려진 것은 1969년 국어국문학회를 계기로 개최된 연구자료전시회를 통해서였다. 66~67 양년間に 걸쳐 정리된 樂善齋文庫本 목록에 의하면 百여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번안, 번역작품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고소설들이 모두 짧은 단편작품인데 비하여 낙선재본은 모두가 장편임이 특색이다. 내용을 보아도 이들이 모두 한 家門을 중심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아 男婚女娶하는 데서 비롯하여 다른 가문과의 관계가 열키고 설켜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에 이르고 등장인물들도 적게는 수십명 크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大河小說이다. 이들은 대개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에 이르는 조선조 말엽에 창작되었으며 궁중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독자층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정병욱교수는 구왕실인척노인(순종왕비의 인척 윤백영)의 증언을 들어 당시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지식층(몰락양반)이 생계를 위해 고소설을 대량 생산하여 이를 貫册家에 방매하였는데 낙선재본의 거개가 세책가에서 궁중으로 흘러 들어가 궁녀 환관들에 의해 轉寫, 保存되던 것들이라 하고 있다.⁵⁵⁾ 낙선재본은 모두가 궁체의 우아한 필사본으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작품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貴族兩班系의 소설과 이른바 庶民系소설의 중간노선을 걷는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⁵⁶⁾ 이중 상당수의 작품들은 二部作 三部作의 連作小說로 되어 있다. 비교적 문학적 가치가 있고 장편에 속하는 작품에는 洛城飛龍(2책) 落泉登雲(5책) 明珠奇逢(24책) 明珠寶月聘(100책) 明行貞義錄(70책) 雙劍奇逢(18책) 報恩奇遇錄(18책) 玉門奇緣(19책) 玉駕重會錄(21책) 玉壺冰心(3책) 玩月會盟宴(180책) 劉氏三代錄(20책) 尹河鄭三門聚錄(105책) 麟鳳韶(3책) 泉水石(9책) 河陳兩門錄(25책) 玄氏兩熊雙麟記(10책) 華山奇逢(13책) 花氏忠孝錄(37책) 등이 있다.

정병욱은 이들 소설 중 靑白雲 落泉登雲 泉水石 花門錄 報恩奇遇錄의 다섯 작품을 검토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들 작품에는 하나같이 傳統社會 즉 낡은 질서가 차츰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여실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泉水石에서는 世俗世界를 지배하는 政治權力의 부당성을 들어 封建的 支配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고 있으며, 落泉登雲은 전근대적 신분구조의 붕괴현상과 화폐경제시대적인 가치관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靑白雲은 작품의 주인공이 다분히 현실적 면모를 갖춘 인간형을 그리고 있으며, 報恩奇遇錄에는 주인공이 기존질서 내지 가치

54) 車裕柱 原本表記의 國漢問題(玉樓夢研究) 螢雪出版社 1981 pp. 38~54.

55) 鄭炳昱 朝鮮朝 末期小說의 類型的 特徵(韓國古典의 再認識) 弘盛社. 1979 p. 165.

56) 樂善齋小說을 정병욱은 家系小說이라 명명하고 이수봉은 家門小說이라 명명하고 있다. 李樹鳳 家門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2.

체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으며 金權이 政權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인생관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낙선재계통의 이조 말기소설은 구운몽을 비롯한 귀족소설과 춘향전을 비롯한 서민소설의 중간에서 근대화의 과정을 구성면에서나 사회 변천의 투영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일군의 작품들이라 평가받고 있다.

李相澤교수는 大河小說로서의 성격 규명을 위한 작업을 시도하면서 예컨대 明珠寶月聘 尹河鄭三門聚錄 嚴氏孝門淸行錄은 三部連作으로 등장인물 및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伏線을 미리 깔아두는 치밀성을 보이고 있으며 작가의 세계관은 非世俗의 超越主義에 기반을 두고 이것을 시종 작품구조의 총체적 원리로 삼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⁵⁸⁾ 連作의 형태도 낙선재본의 한 특색으로, 예컨대 雙鉤奇逢은 李氏世代錄으로 연결되고 李氏世代錄은 麟鳳雙系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雙鉤奇逢은 玄氏兩熊雙麟記가 明珠奇逢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明珠玉緣奇合錄으로 연결되어 있음과 동일한 이른바 三部作 連作小說임을 알 수 있다.⁵⁹⁾

이상택은 洛城飛龍 落泉登雲 靈異錄 泉水石 西海武陵記등의 작품들을 주로 婚事障礙 主旨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들 소설이 형태적 측면에서 基本型 發展型 複合型으로 분류됨을 말하고, 복합형에서는 반복되는 혼사장애에 덧붙여 다른 主旨의 삽화가 並列的 順次的으로 첨가되어 본격적 작품 속의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게 되고, 따라서 樂善齋本類에서 볼 수 있는 長篇 大河小說의 구조적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⁶⁰⁾ 金起東교수는 이러한 장편 가문소설의 소설사적 비중을 역설하면서 明珠寶月聘 尹河鄭三門聚錄 華山仙界錄 劉李兩門錄 報恩奇遇錄 明行正義錄 林氏三代錄 碧虛堂關帝言錄 河氏善行後代錄 再生緣傳 李氏世代錄 明珠奇逢 衛氏世代錄 和靜善行錄 楊賢門直節記 楊門忠義錄 玉樹記의 17편을 새로이 경계와 더불어 소개하고 있다.⁶¹⁾

VII. 판소리계 소설

소설문학의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口誦文學과 演唱文學으로 나뉜다. 전술한 講談師나 傳奇叟에 의한 문학은 전자요 唱과 아니리로 걸어가는 廣大의 판소리는 후자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판소리의 생성학설로는 巫歌에서의 進化說(정노식, 이해구), 근원설화의 唱化(김삼불, 김동욱), 춘향전 한문본 번역설, 문장체 선행설(김사업, 장덕순)등의 주장이 있

57) 註55. 參照.

58) 李相澤 尹河鄭三門聚錄研究(韓國古典散文研究) 同和文化社 1981.

59) 金鎮世 雙鉤奇逢研究(冠岳語文研究一집) 1976.

60) 李相澤 樂善齋本小說研究(韓國小說文學의 探究) 一潮閣 1980.

61) 金起東 家門小說(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1.

으나 어느 것을 定說로 내세울 결정적 근거는 없다. 다만 판소리의 형성은 열두마당이 이룩된 肅宗말에서 英祖초에 이르는 時期가 아니었을까하는 추단에 그칠 뿐이다. 열두마당에 대해서는 宋晩載의 觀優戲에서 비롯하여 尹達善의 廣寒樓樂府〈凡雜歌十二腔〉이 나오고 그 사이에 申在孝의 여섯마당 李善有의 五歌 다시 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서 열두마당으로 복귀한다. 宋晩載는 春香歌 沈淸歌 興夫歌 水宮歌(토끼타령) 赤壁歌(華容道) 가루지기打令(변강쇠타령) 襄裨將打令 장끼打令 雍固執打令 曰字打令 가짜神仙打令의 열두마당을 들고 있는데, 鄭魯湜은 왈자타령을 武叔이타령으로 가짜神仙타령을 淑英娘子傳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이들 열두마당은 모두 소설과 관련하고 있어 김동욱교수의 주장처럼 근원설화→판소리→小說化的 일반적 도식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며, 이렇게 볼 때 왈자타령을 李春風傳으로(장덕순) 매화타령을 烏有蘭傳으로(김기동) 보려는 견해는 설득력을 갖는다.

春香傳은 民族文學의 頂點이면서 판소리소설의 代表的 作品이다. 판소리의 형성을 18세기 초엽(숙종말~영조초)으로 볼 때 晩華本 春香歌(영조 30·1754)는 판소리 최초의 文獻이 되는 셈이다. 춘향전의 異本은 90여종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연대상으로는 晩華本을 넘어서는 작품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근래 춘향전 연구의 성과로는 南原古詞(1864~1869)가 소개되었다.⁶²⁾ 行文이 판소리적이고 서민적 肉談이 풍부하여 춘향전 중 가장 분량이 많고 연대가 비교적 앞서는 점에서 보아 原春香傳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完板의 경우 別春香傳→丙午板 春香傳→烈女春香守節歌로 이어지는 계통도 이미 밝혀지고 있으며 申在孝本의 비중도 學界에서 평가받고 있는 터다. 그러나 춘향전의 가치 평가는 아직 충분히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沈淸傳 역시 판소리계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한문본이 있기는 하나 이는 후대의 改作으로 보인다. 秋齋 趙秀三의 紀異에도 傳奇叟가 심청전 읽는 광경을 기술하고 있으며 李裕元의 林下筆記 觀劇詩에도 이미 심청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崔雲植교수는 심청전의 형성과정을 背景說話→翰南本→宋洞本→完板本으로 설명하고, 翰南本이 판소리와 무관한 文章體이며 宋洞本 完板本의 판소리적 요소를 나열하여 근원설화→판소리→소설의 도식은 설화적 배경하에서 소설이 먼저 형성되고 이가 다시 판소리로 이행되었을 경우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³⁾ 지금까지 심청전 연구의 경향은 根源說話의 추구, 影響關係의 解明, 倫理的 評價이 세 방향에 집중되고 있는데, 주제는 불교적 차도에서 파악되기도 하나 孝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 고난을 유교윤리를 통해 해결하려는 심청의 비장과, 뽕덕어미와 심봉사의 골계스런 행위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양면성은 판소리로서의 특이한 구조로 이중주제를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완판본의 경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62) 金東旭의 春香傳比較研究(三英社) 1979.

63) 崔雲植 沈淸傳研究(集文堂) 1982 p. 182.

다.⁶⁴⁾

興夫傳 역시 판소리계 작품의 하나로 박타령 또는 朴興甫歌라고도 일컬어진다. 춘향가는 貞烈 심청가는 孝 흥부가는 梯 수궁가는 忠 적벽가는 信을 주제로 하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 흥부가는 특히 民譚의 판소리화라는 관점에서 주목된다. 원래는 욕심장이 놀부와 선량한 흥부의 대립에 그쳤을 것이나 놀부의 사고는 조선 후기에 대두한 서민부자의 현실주의를 대변하고 있으며 흥부는 양반이라는 신분에 집착하여 전통적 유교윤리에 구속된 인간형으로 대조되어 있는 이면적 주제성이 지적되기도 한다.⁶⁵⁾

· 북을 치되 잡스러히 치지 말고 똑 이렇게 치랴다. 담안에 아방궁 높이 짓고 옥쇄를 드러치며 육국 제후를 조희받듯이 기암층층 만악친봉 깊은 곳에 잣나비 색기 두고 애정을 못잊어 여스러져가는 듯이 다시 치면 내 이상한 고담 하나를 하여 보리라.⁶⁶⁾

〈북을 치되 잡스러히 치지 말고……내 이상한 고담 하나를 하여 보리라〉에서 보면 이는 독본이라기보다 신나는 판소리였음이 분명하다.

· 水宮歌는 토끼전 鼈主薄傳 兎生傳 兎鼈歌 不老草 兎의肝 등 여러 異稱이 있다. 한문본에도 兎公傳 兎公辭 鼈兎傳 등이 있으나 국문본이 先行한다. 이 작품의 연원은 三國史記 列傳 金庾臣條에 보이는 龜兎之說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인도의 자타가 本生經 鼈獼猴經등에 이미 그 우화적 근원이 있는 것을 보면 佛典說話가 龜兎之說을 낳고 이가 조선조 후기에 들어가 판소리화하였으며 후일의 다양화된 토끼전의 경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⁷⁾ 장끼전도 장끼타령을 소설화한 작품으로 일명 雄雉傳 雌雉歌라는 이본이 전하는데, 장끼가 아내인 까투리의 만류를 듣지 않고 콩을 먹고 죽어 과부가 된 까투리는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다시 홀아비 장끼에게 改嫁하여 새 행복을 누리다는 내용으로, 조선조 후기에 와서 야기된 女性의 改嫁를 둘러싼 社會的 地位問題를 다룬 작품으로, 이러한 시대적 풍자가 판소리 장끼타령에 수용되고 있다. 그밖에 赤壁歌는 三國志의 赤壁大戰을 발취한 판소리로 華容道라고도 일컬어지며 상술한 형성의 공식성을 벗어나 說話→小說→打令의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판소리 소설과 관련된다는 대표적 문헌 가운데는 宋晩載의 觀優戲, 甲申完文 丁亥所志, 申紫霞의 觀劇詩, 張之琬의 廣寒樓詩, 趙在三의 松南雜識, 尹達善의 廣寒樓樂府, 李裕元의 觀劇八令, 李建昌의 賦沈清歌 등이 있다.⁶⁸⁾

64) 趙東一 沈清傳에 나타난 悲壯과 滑稽(啓明論叢 7집) 1971.

65) 林炎澤 興夫傳의 現實性에 관한 研究(문화비평 통권 4호) 1969.

66) 一簣文庫 흥부전 初頭(孫洛範 교주).

67) 拙稿 韓國諷刺小說選 토끼전해설 正音社 1975 참조.

68) 金興圭·趙東一 판소리史研究의 諸問題(판소리의 理解) 1978. p. 89

VIII. 衰頹期の 國文小説

판소리소설에서는 農民 妓女 下僚 등 모두 庶民의 群像들이 작품의 주역들로서 이들이 가지는 日常의 삶과 꿈을 戲畫化하고 있음이 特色이다. 이는 조선후기의 辭說時調 民俗劇本 繪畫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英正代까지 全盛期를 장식한 소설들은 純祖代에 접어들면서, 朗誦되던 작품들이 戲曲의 要素를 加味하여 演劇化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판소리의 대가 桐里 申在孝도 純祖 12년(1812)에 태어나 高宗 21년(1884)에 작고하기까지 五衛將 또는 嘉善大夫란 벼슬까지 지내면서 春香歌 沈淸歌 興夫歌 兎鼈歌 赤壁歌 橫負歌 등 판소리 여섯마당을 완성하였는데, 이러한 소설과 판소리의 관계가 바로 읊는 문학에서 노래하는 문학으로 移行하는 이 시기 소설의 운명을 자질해 주고 있다.

裊裊將傳, 雍固執傳, 李春風傳, 彩鳳感別曲, 青年悔心曲 등은 모두 古小說時代를 마무리짓는 끝물 작품들이다. 이들은 戲曲의・歌曲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歌辭도 삽입되는 등 표현의 변화와 아울러 차츰 삶을 諧謔의으로 보려는 태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

배비장전에서 愛娘과 房子에 의해 東軒마당에 알몸등이로 내동댕이쳐진 비장은 이 작품이 풍자와 해학의 신랄성을 엿보게 한다. 배비장전의 拔齒說話는 晚華本 春香歌의 <濟州將留裊將傳>라는 귀절이 보여주듯 연원이 매우 오래여서 판소리 열두 마당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成長文學의 성격을 짐작할만하다. 방자로 하여금 양반사회의 위선적 이면세계를 폭로하여 독자에게 통쾌미를 부여하는 이 작품은 그대로 조선조 후기의 서민생활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李春風傳 역시 배비장전처럼 春風의 방탕한 생활을 통해 몰락양반들의 생활 위정자들의 부패상을 해학적으로 폭로해 준다. 방탕한 李春風 貪官汚吏의 전형 崔參判 돈만 아는 秋月 기지 넘치는 金夫人(방자), 이들의 성격이 치밀성있게 묘사되고 있어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표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彩鳳感別曲에서 보는 채봉과 弼成의 순애는 夢龍과 春香의 사랑을 압도한다.⁶⁹⁾ 딸까지 팔아 벼슬을 얻으려는 金進士, 好色과 賣官에만 눈이 먼 許判書, 시골 양반을 등쳐먹는 金良柱 자식은 돌보지 않고 남편만 생각하는 李夫人, 이 모두가 彩鳳과 弼成의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기 위한 土壤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말기소설의 社會的 背景을 더욱 다져주고 있다. 채봉이 읊는 秋風感別曲에서 보는 것처럼 가곡 절반의 희곡적 문체에서도 이 작품의 특색은 살아 있다.

69) 李相澤은 이 작품을 사회적 안티테제 제기에 관심이 없음을 들어 춘향전 보다 오히려 雲英傳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韓國古典小說의 探究) p. 280.

青年悔心曲은 가사의 길이가 작품의 1/3을 차지한다. 오히려 작품의 내용이 가사의 유래를 설명해 놓은 듯하여 마치 初期 漢文小說에서 보는 插入詩의 성격과도 방불하다. 주인공 眞性의 유배생활의 고경과 참회와 애인에 대한 相思戀情을 가사로 표현하여 주제성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古小說의 末期作品들이 新小說과 이어지는 곳에는 상당한 時間的 空白이 보인다. 灌頂醍醐錄(1904) 靑樓義女(1906) 등의 작품은 神斷公案(1906) 龍含玉(1906) 등 일련의 한문 위주의 현토소설들과 더불어 開花期에 나타난 李朝小說의 殘影이라고 하나, 소설의 技法・文體・主題 모든 면에서 古소설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이 시기는 新舊文學의 混淆가 극심하여 拮抗의 기간이 오래 걸림으로 해서 古소설・新소설이 같이 併存하던 시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⁷⁰⁾

IX. 맺는말

國文小說의 발생은 漢文小說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문소설의 발달은 社會階層의 변화, 서민층 부녀층의 自覺과 경제적 성장과도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지금까지의 소설사는 대개 光海君 때 許筠의 洪吉童傳을 국문소설의 嚆矢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론에서 제기된 바와는 安樂國太子傳・王郎返魂傳을 그 이전의 작품으로 인정하려는 주장도 있다. 이들 두 작품은 모두 佛經諺解 내지 信佛思想과 관련된 특수 목적에서 지어진 바이며, 또 전자는 佛經諺解의 일부로 나타난 작품이며, 후자는 勸念要錄의 나머지 작품으로 미루어 보아 순수한 우리 작품인지조차 의심스러운 뿐더러 普雨의 번역을 둘러싸고도 異論이 있다. 작품의 概念規定마저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소설의 發達過程에서 金時習에서 林悌를 거쳐 許筠에 이르는 사이에 중요한 架橋 役割을 해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洪吉童傳의 작자에 대한 논의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이 국문소설이었다는 문헌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존작품을 원작으로 보는데는 의심이 없지 않다. 澤堂集과 松泉筆譚의 기록을 견주어 보아도 오늘의 洪吉童傳은 전승을 중심으로 훨씬 후대에 창작되었을 험마져 있다.

국문소설은 거의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므로 개별작품의 연대 추정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문헌기록에 남은 講談師・傳奇叟들의 이야기나 冊居間 내지 書肆의 발달 坊刻本에 의한 서적의 보급실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품명을 나열 인용한 대목에서 소급하여 연대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要路院夜話의 〈古談〉 李德懋의 〈稗史〉 警修堂集의 〈傳記〉 李學遠의 〈諺韻小

70) 宋敏鎬 開化期小說의 舊小說의 殘影(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系譜) 一志社, 1975.

說) 六美堂記의 〈稗官診書〉의 기록에서, 熱河日記의 林將軍傳 劉氏三代錄, 潭庭叢書의 蘇大成傳, 松南雜識의 南征記 感義錄, 秋齋集의 淑香傳 蘇大成傳 沈清傳, 象胥記聞의 張豐雲傳 九雲夢 崔鉉傳 蘇大成傳 崔忠傳 淑香傳...林下筆記의 蘇氏名行錄 등의 구체적 기록이 작품의 상한연대 추정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이고 광범한 국문소설의 연대 추정작업은 政治的·社會的 變動이나 商業資本의 이동 그리고 三國志 薛仁貴傳등 인접국 문화(소설)의 이동실태 파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규명되어질 것이 기대된다.

家庭小說에서는 薔花紅蓮傳 彰善感義錄 謝氏南征記를 들어 그 原本이 국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장화홍련전은 全東屹의 6대손 萬宅의 청에 의해 診冊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다는 근거와, 창선감의록은 花珍傳이 원래 국문본이었다는 근거, 사씨남정기는 北軒集의 근거를 제시하여 국문소설 선행설을 논증하였으나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英雄小說에서는 崔文獻傳을 들어 이미 17세기 중엽 이전의 작품임을 말하고 崔忠傳을 들어 국문본이 별도로 창작 전승된 사실을 밝혔다. 또 역사군담에서 壬辰錄은 설화를 바탕으로 국문본이 먼저되고 한문으로 축약 번역된 과정을 밝혔으며, 朴氏傳의 후편인 林慶業傳의 경우도 林忠愍公實記가 正祖命撰인 점과 熱河日記 渡江錄의 林將軍傳, 象胥記聞의 임장군충렬전등의 기록을 견주어 볼 때 소설이 실기와는 별도로 설화를 바탕으로 훨씬 소급된 연대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논술했다. 또 창작군담은 전란 후 경색된 정국과 時代意識의 반영으로 가장 많이 창작되어 읽혀졌으며, 작자와 독자의 상관적 함수가 영웅소설이 주종인 상업적 방작본의 출현을 가져온 사실을 말하였다.

樂善齋小說은 家門小說들로, 장편 大河小說이 대부분이며 連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도 특색으로 지적되었다. 작품의 구성면에서 보면 귀족소설과 서민소설의 중간유형에 해당하며, 모두가 전통사회의 낡은 질서가 차츰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일반적 작품연대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에 걸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판소리계소설은 영웅소설류의 쇠퇴와 관련을 갖고 있으며 諧謔性이 그 특성임을 말하였다. 宋晩載의 열두마당 申在孝의 여섯마당이 모두 소설과 관련되어 있어 근원설화—판소리—소설화의 일반적 도식이 성립되나, 이들 모두가 판소리로 불리워진 것은 아니고 대부분 이른바 소리소설로 전승하였음을 말하였다.

끝으로 쇠퇴기의 국문소설 襄裨將傳, 雍固執傳, 李春風傳, 彩鳳感別曲 등은 판소리의 영향이 짙고 戲曲 내지 歌曲의 성격을 띠고 歌詞가 삽입되는 등 삶의 戲畫化된 모습을 보이며 開化期의 新小說이 태어나기까지 상당한 空白期間을 두고 古소설의 殘影을 보여주고 있음을 論述하였다.